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신년사 진행상황과 기타 원고 I

헤드라인뉴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경제성장률을 달성	사회·복지	수도권에 '성희롱 방지 재판소' 설치 추진
신년사 진행상황	도시 빈곤·범죄 증가 대응 및 인종차별·괴롭힘 방지 정책 추진	행재정·교육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활동 지원 추진
		환경·안전	재활용품을 생필품으로 교환해주는 무인단말기 설치·운영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미국

로스앤젤레스	김민희
시카고	강기향
올랜도	박혜진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한 울
------	-----

<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	-----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	-----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칭다오	강경이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	-----

독일

베를린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	-----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김나래
----	-----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경제성장률을 달성

중국 충칭시 / 후형화(胡衡華) 시장 / 신년사 진행상황

충칭시는 2021년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보다 8.3% 늘어나 중국 전체 도시 중 5위, 내륙지역 도시 중 1위를 차지. 왕성한 소비와 급성장한 무역이 경제 성장을 주도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 올해 시장 신년사에서 2022년 GRDP의 성장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잡았으나, 상반기 결과는 4.0% 증가하는 데 그침. 하지만 중국 전체 GDP 성장률 2.5%보다는 훨씬 높고,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전체 도시 중 4위를 차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도 중국 전체 평균보다 낮음

2021년 충칭시가 거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성과

- 후형화(胡衡華) 충칭(重慶)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21년 충칭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보다 8.3% 늘어난 2조 7,894억 위안을 기록하여 중국 전체 도시 중 5위를 차지했다고 밝힘
- 2021년 충칭시의 GRDP 성장률은 중국 전체 평균 GDP 성장률 8.1%보다 높고, 중국 5대 도시 중에서는 2위, 내륙지역 도시 중에서는 1위라는 호성적을 기록 - 4위인 광저우(廣州)시 GRDP와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져서 2022년에는 충칭시 GRDP가 광저우시를 제치고 역사상 처음으로 4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큼

[표] 2021년 중국 GRDP 상위 5대 도시 현황 (출처: 즈후)

순위	도시명	2020년 GRDP(위안)	2021년 GRDP(위안)	증가율 (%)	2021년 1인당 GDP(위안)	비고
1	상하이(上海)시	3조 8,700억	4조 3,214억	8.1	17만 3,757	직할시 ¹⁾ /연해 도시
2	베이징(北京)시	3조 6,102억	4조 269억	8.5	18만 3,937	수도/직할시/연해 도시
3	선전(深圳)시	2조 7,670억	3조 664억	6.7	17만 4,628	광둥(廣東)성/홍콩 인접/연해
4	광저우(廣州)시	2조 5,019억	2조 8,231억	8.1	15만 1,162	광둥성 성도/연해 도시
5	충칭(重慶)시	2조 5,002억	2조 7,894억	8.3	8만 7,021	직할시/내륙 도시

1) 중국 내 직할시는 4개로 베이징(北京)시, 상하이(上海)시, 톈진(天津)시, 충칭시

- 2021년 충칭시의 고정자산투자²⁾는 전년보다 6.1%, 사회소비품³⁾ 판매총액이 18.5%, 수출입 총액이 22.8% 늘어나, 소비와 무역이 경제 성장을 주도했음을 보여줌
 - 전체 시민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9.7% 증가한 8만 7,021만 위안을 기록하여 다른 직할시와의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음
 -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중국 전체 평균치인 0.9%보다 낮은 0.8%를 유지

올해 시장 신년사에서 밝힌 2022년 목표와 상반기 결과

- 후형화 충칭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22년 충칭시의 GRDP 성장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잡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2022년 GDP 성장 목표치와 같음
 - 후형화 시장은 GRDP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공업생산 증가율은 6% 안팎,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6% 안팎, 사회소비품 판매총액 증가율은 7% 안팎, 수출입총액 증가율은 5% 안팎을 목표로 잡았다고 밝힘
 - 전체 시민의 1인당 평균 소득은 7% 안팎으로 증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이내로 억제하고, 실업률은 5.5%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 7월 충칭시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충칭시 경제운영 상황보고’에 따르면, 후형화 시장이 당초 목표로 한 2022년 GRDP의 성장치를 달성하지 못함
 - 2022년 상반기 충칭시의 GRDP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1조 3,511억 위안을 기록
 - 하지만 중국 전체 GDP 성장률인 2.5%보다는 훨씬 높고, 중국 4대 직할시 중에서 가장 높으며, 광저우시의 GRDP 1조 3,433억 위안보다 높아, 충칭시의 GRDP 규모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전체 도시 중 4위를 차지

[표] 2022년 상반기 충칭시 주요 지표와 중국 전체 지표 비교 (출처: 중상정보넷)

	2021년 GRDP (위안)	2022년 상반기 GRDP (위안)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	실업률 (%)
중국 전체	114조 3,700억	56조 2,600억	2.5	1.7	5.7
충칭시	2조 7,894억	1조 3,511억	4.0	1.4	5.4

- 2022년 상반기 충칭시의 공업생산 증가율은 6.3%,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6.9%, 사회소비품 판매총액 증가율은 1.1%를 기록했는데, 소비가 침체한 대신에 공업 생산과 고정자산투자가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었음

2) 고정자산투자는 토지, 건물, 공장 등과 같은 고정된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3) 사회소비품은 국가 전체나 특정 지역 혹은 도시에서 상업 활동을 통해 거래된 일체의 물품을 지칭

- 전체 시민의 1인당 평균 소득은 6.4% 늘어났고, 소비자물가는 1.4%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5.4%로 유지됐는데, 시민의 1인당 평균 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2022년 신년사에서 밝힌 목표치를 달성했고, 실업률은 중국 전체 평균치보다 0.3% 낮았음
- 2022년 충칭시는, 후형화 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2022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목표’의 핵심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겠지만, 중국 GRDP 상위 5대 도시 중 가장 높은 경제사회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큼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에 따른 중국정부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평소 중국인들은 공공장소를 이용하거나 다른 省市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PCR 검사를 사전에 받아 음성 판정이 나와 하는데, 이 강제 규정이 2022년 중국 전체와 충칭시의 소비를 대폭 감소시켜서 성장의 발목을 잡았음
 - 다만 충칭시는 전통 제조업과 첨단 IT산업이 골고루 발달한 제조업 도시라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고, 도농 복합도시의 특징을 갖고 있어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하여 소비자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게다가 2022년 상반기에 충칭시에서는 어떠한 봉쇄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市政)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음
 - 반면, 상하이시는 전면 봉쇄를, 베이징시/톈진시/선전(深圳)시/광저우시는 부분 봉쇄를 겪었음

http://www.cq.gov.cn/zwgk/zfxxgkml/zfgzbg/202201/t20220124_10330662.html

<https://www.askci.com/news/data/hongguan/20220719/1447181929652.shtml>

http://tjj.cq.gov.cn/zwgk_233/fdzdgknr/tjxx/sjld_55469/202207/t20220719_10931887_wap.html

<https://zhuanlan.zhihu.com/p/460090797>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도시 빈곤·범죄 증가 대응 및 인종차별·괴롭힘 방지 정책 추진

캐나다 에드먼턴시 / 아마리에트 소히(Amarjeet Sohi) 시장 / 신년사 진행상황

에드먼턴시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 재건과 함께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 빈곤과 범죄 증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관련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인종차별 및 괴롭힘 방지’ 제도 강화를 올해 주요 신년 과제로 정함. 시는 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내고, 인종차별 관련 독립기구를 설치했으며,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강화해 시행

올해 시장 신년사를 통해 발표한 2022년 주요 계획

- 에드먼턴시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 회복을 2022년 우선 과제로 선정
 - 2014년 이후부터 이어진 에드먼턴시의 주요 산업인 석유 산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꾸준히 증가
 - 에드먼턴시는 2022년 현재 인구 150만 명을 기록해 2019년 146만 명 대비 4% 증가하여 사회간접자본인 산업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
 - 에드먼턴 시장은 지역사회 체육시설에 2억 8,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19년부터 건설하고 있는 신규 경전철 사업이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
 - 2019년 이후 인구 증가와 함께 2배로 증가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생활기반시설,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 투자할 계획.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예정
 -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
- 또한, 시장은 도심의 노숙자 문제와 마약류 및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둘 것을 강조
 - 경찰과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경찰과 사회적 지원이 적절하게 투입되어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 특히 도심의 차이나타운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복지기관, 경찰 등과 함께 혁신적인 해결책을 계속 강구
 - 에드먼턴 경찰, 소방관, 구급대원, 사회복지기관 등으로 구성된 통합팀을 배치할 예정
 - 에드먼턴 경찰청과 지역 사설 보안업체와 협력하여 24시간 상시 순찰 체계를 확립할 계획

- 도심의 차이나타운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도시 전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임
 - 교정시설, 노숙자 수용시설, 약국 등에 대한 신규 설립 허가를 제한하여 도시 전역으로 분산되도록 장려할 예정임
- ‘반(反)인종차별 전략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괴롭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시장 신년사에서 밝힌 주요 계획의 진행상황 및 성과

-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서비스요금을 동결
 - 캐나다 주요 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9% 인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
 -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향후 1~2년간 세금 부담을 완화
 - 밴쿠버市와 같은 서부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고급주택세’와 ‘외국인 주택 구입세’ 도입을 검토 중
 - 대중교통요금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2022년 1월 확정
 - 당초 3.5달러(1회 현금 지불 기준)에서 4.0달러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긴급 지원금 예산을 사용하여 예년 수준으로 동결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연방정부의 투자금 유치
 - 주요 간선도로의 확장 공사를 9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순환고속도로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 중
 - 예산 문제로 폐기할 계획이었던 서부 경전철 공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州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2022년 5월 관련 예산을 확보
- 도심 노숙자 문제와 도심 공동화 현상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마련
 - 2022년 5월, 에드먼턴 도심의 우범지역인 차이나타운 환경개선 계획이 가시화되기 전에 개인 사업을 하던 60대 남성 2명이 행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 이 사건을 계기로 市는 전과자가 인근 노숙자시설로 대거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소자 분리 체계를 마련
 -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앨버타州로부터 자금 지원을 약속받음
- 2021년 제정된 ‘반(反)인종차별 전략 조례’의 후속 조치로 관련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재정을 지원
 - 독립된 기구인 ‘반인종차별 기구’를 설립하고 21만 5천 달러를 지원함

- 市 내부에도 반인종차별 조직 구성
- 기존 경범죄 조례에 괴롭힘 방지 조항을 추가하여 2022년 9월부터 개정된 경범죄 조례를 시행
 - 인종, 종교,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취향 등에 근거한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 이러한 행위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위반 시 벌금을 2배 가중해 부과
 - 개정된 조례에 따라 범죄로 간주하는 행위는 인종, 종교적 신념, 피부색, 신체 및 정신적 장애, 연령, 결혼 여부, 가족 상태, 성별, 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에 대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 위협, 따돌림 등임. 그리고 외모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됨

<https://edmonton.ctvnews.ca/changes-have-to-be-made-sohi-outlines-new-chinatown-safety-plan-after-community-push-for-action-1.5924970#:~:text=Mayor%20Amarjeet%20Sohi%20unveiled%20a,businesses%20to%20hire%20private%20security>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edmonton-transit-fare-stays-at-3-50-after-council-vote-1.6288504#:~:text=Cash%20fare%20was%20set%20to%20jump%20to%20%244%20next%20year&text=23-,Riders%20getting%20on%20an%20Edmonton%20bus%20or%20LRT%20train%20with,in%20the%202022%20operating%20budget>

<https://globalnews.ca/news/8619745/edmonton-anti-racism-strategy/>

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bylaws/new-updated-bylaws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수도권에 ‘성희롱 방지 재판소’ 설치 추진

말레이시아 / 사회·복지

말레이시아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성희롱방지법안이 발의된 지 10여 년 만에 하원에서 통과. 이 법안은 성희롱 방지 재판소를 설치해 피해 즉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과 명령 등 해결방안을 포함

배경

- 말레이시아 성희롱 피해 현황 조사
 - 말레이시아 여성가족부의 201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의 80%가 수치심, 공포감 등의 이유로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
 - 2019년 국제 여론조사기관 유고브 옴니버스(Yougov Omnibus)가 1,002명의 말레이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35%, 남성 응답자의 17%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집계
 - 2020년 여성원조기구(WAO, Women’s Aid Organization)가 1,010명의 말레이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2%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변

성희롱방지법안 하원 통과

- 7월 20일 성희롱방지법안(Anti-Sexual Harassment Bill 2021)이 말레이시아 하원(Dewan Rakyat)에서 통과됨
 - 2000년에 성희롱 대책 및 방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 2011년 처음 성희롱방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하원 통과까지 오랫동안 논쟁을 거침
 - 2021년 12월 15일 하원에서 1차 독회(First Reading), 2022년 7월 19일 2차 독회(Second Reading)를 거쳐 2022년 7월 20일 성희롱방지법안이 하원에서 통과¹⁾
 - 2022년 8월 중 상원(Dewan Negara)에서 3차 독회 등을 거친 뒤 국왕의 재가를 얻어 입법될 예정

1) 하원에서 1차 독회(First Reading, 법안 소개), 2차 독회(Second Reading, 토의 및 입법 절차 진행 여부 표결)를 통과한 법안은 위원회(Committee Stage, 법안 검토 및 수정), 3차 독회(Third Reading, 표결 승인)를 거쳐 다시 상원에서 같은 절차를 밟은 뒤 국왕 승인 단계를 거쳐 입법됨

성희롱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 성희롱 방지 재판소 설치
 - 수도권인 클랑벨리에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을 다루고 피해자가 사과나 보상을 받도록 조정하는 성희롱 방지 재판소(Tribunal Antigangguan Seksual)를 설치
 - 사법부가 임명한 재판소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해 성희롱 전문 변호사 등 1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배심원단은 판결의 공정성을 위해 최소 1명의 여성과 최소 1명의 남성을 포함
- 성희롱방지법안 제20조의 주요 내용
 - 성희롱 방지 재판소에 피해자와의 상담, 가해자에게 지역사회 봉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권한 부여
 - 성희롱 피해자들이 자기 비하, 공포감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금전적 보상 외에 상담 등 심리적 해결책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성희롱 신고 절차 및 처벌 규정
 - 법안이 통과되면 성희롱(언어적, 비언어적, 시각적, 몸짓, 신체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
 -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판정하게 됨
 - 성희롱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5만 링깃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벌금형 또는 2년의 징역형에 처함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기존 벌금 1만 링깃 보다 5배 인상된 5만 링깃의 벌금형에 처함
 - 성희롱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명령

<https://www.thestar.com.my/lifestyle/family/2022/07/29/the-anti-sexual-harassment-bill-simply-means-ti-me039s-up-for-offenders>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2/07/816366/anti-sexual-harassment-bill-seeks-bring-awareness-understanding-among>

<https://www.aljazeera.com/news/2022/7/19/sexual-assault>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2/07/21/sexual-harassment-now-a-crime>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활동 지원 추진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행정정·교육

바르셀로나市 아다 콜라우(Ada Colau) 시장은 2022년 1월 신년사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활동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이 정책은 경제적 격차로 인한 방과 후 활동 참여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하지만 교사 등 관계자들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새 학기를 앞두고 정책 시행의 어려움에 직면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활동 지원 정책’의 목적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정책’은 도시 내 각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방과 후 활동 참여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

- 시행 계획
 -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략방안
 - 저소득층 지역 주민을 위한 장학금 제도 마련
 - 방과 후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마련
 - 취약가정의 아동을 위해 市에서 방과 후 교육 지원 프로그램 제공
 - 방과 후 활동 표준 모델 연구
 - 방과 후 활동의 가치 인식 및 개선을 위한 전략방안
 - 방과 후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 사무소를 개설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활동 선택, 관리, 제공에 대한 학부모협회의 역할 확대
 - 방과 후 활동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과 후 활동 승인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교육 지원 활동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실시
 - 방과 후 활동을 해당 지역 전체의 교육 및 문화 생태계와 연결하기 위한 전략방안
 - 방과 후 활동 운영의 중앙집중화를 위한 방과 후 활동 위원회를 조직
 - 지역사회 시설 및 지역사회의 교육인력 활용, 지역위원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

○ 시행 일정 및 추진 현황

- 시행 일정
 - 2022년 1월까지 방과 후 활동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 및 학교별 상황 분석
 - 2022년 4월까지 방과 후 활동 관리 전담 사무소 개설
 - 2023년 1/4분기까지 공식적으로 승인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개설
 - 2023년 9월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장학금 지원
- 추진 현황
 - 2022년 1월 방과 후 활동 시스템의 중앙집중화를 위해 市를 중심으로 하는 방과 후 활동 위원회를 조직
 - 그런데 2022년 4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방과 후 활동 관리를 위한 전담 사무소 개설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음
 - 2022~23학년도 학사 일정이 교사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된 것을 계기로 3월 교사단체의 파업이 시작되었고, 이후 카탈루냐州 정부와 교사 노조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

정책에 대한 비판

- 방과 후 활동 모니터링요원 고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 제기
 - 스페인의 노동조합 UGT(Unión General de Trabajadores)와 CC.OO(Comisiones Obreras)는 학사 일정에 방과 후 활동이 대폭 추가되면서 이를 위한 대규모 방과 후 활동 모니터링요원이 필요한데, 방과 후 활동 시간이 단 1시간이라는 점, 단 1시간을 위해 필요한 인원이 대규모라는 점을 들어 충분한 인원의 모니터링요원 고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
- 민간 교육기관이 방과 후 활동을 담당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민영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 제기
 - 카탈루냐州 정부 교육부는 ‘카탈루냐 학생 가족 연합회’와의 회의에서 방과 후 활동을 민간 교육기관이 담당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카탈루냐 학생 가족 연합회 측은 방과 후 활동을 담당할 민간 교육기관 선정의 형평성 및 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교육의 민영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

https://www.youtube.com/watch?v=TRn6iQpV6_U

<https://ajuntament.barcelona.cat/premsa/2022/01/25/nova-mesura-pionera-de-barcelona-pels-drets-de-la-infancia-acces-universal-i-generalitzat-a-les-activitats-extraescolars/>

https://ajuntament.barcelona.cat/sants-montjuic/es/noticia/actividades-extraescolares-para-todos-los-ninos-2_1139567

https://ajuntament.barcelona.cat/educacio/sites/default/files/PPT_Estrategia_Politica2Tardes_castellano.pdf

https://bcnroc.ajuntament.barcelona.cat/jspui/bitstream/11703/123944/1/220125_MesuraGovern_Digital.pdf

https://ajuntament.barcelona.cat/participaciociudadana/es/noticia/se-crea-una-nueva-mesa-de-participacion-de-ciudad-la-mesa-de-tardes-educativas_1139668

<https://ajuntament.barcelona.cat/educacio/ca/actualitat-i-recursos/noticies/barcelona-ciutat-educadora-amb-i-des-dels-barris-1176380>

<https://ajuntament.barcelona.cat/educacio/ca/tardes-educatives>

<https://ajuntament.barcelona.cat/educacio/ca/menja-llibres>

<https://ajuntament.barcelona.cat/educacio/ca/actualitat-i-recursos/noticies/es-crea-la-taula-de-tardes-educatives-de-ciutat-per-impulsar-les-activitats-extraescolars-1139283>

https://es.ara.cat/sociedad/polemica-gestion-extraescolares-durante-tardes-septiembre_1_4369970.html

<https://www.diaridetarragona.com/tarragona/la-posible-falta-de-monitores-para-septiembre-preocupa-a-los-sindicatos-FD11303006>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재활용품을 생필품으로 교환해주는 무인단말기 설치·운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 환경·안전

쿠알라룸푸르시(DBKL)는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단지에 재활용품을 생필품으로 교환해주는 무인단말기를 설치해 운영.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공공주택에 사는 주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

배경

- 높은 쓰레기 처리 비용
 -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4만 톤으로, 이 중 95%를 쓰레기 매립지에서 처리
 - 연간 발생하는 쓰레기는 2018년(36,843톤), 2019년(37,462톤), 2020년(38,081톤), 2021년(38,699톤), 2022년(39,936톤)으로 증가세
 - 이러한 증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폐기물과 2021년 12월 발생한 홍수가 주요 원인
 - 쓰레기 처리 비용은 연간 3억 링깃
- 쓰레기 매립지 문제
 - 말레이시아 쓰레기 매립지는 위생 매립지¹⁾ 14개를 포함해 총 147개
 - 쓰레기 매립지 관리 비용은 연간 19억 링깃으로, 매립지의 사용 수명은 앞으로 15~20년으로 추정
- 낮은 재활용률
 - 말레이시아에서 단순 소각·매립하는 재활용품은 연간 4억 7,600만 링깃 상당
 - 쓰레기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종이(17%)와 플라스틱(9%)으로, 연간 각각 2억 500만 링깃, 1억 6,300만 링깃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산
 - 2021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재활용률은 31.52%로, 이는 선진국 평균(60%)의 절반 수준
 - 말레이시아는 2025년까지 재활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재활용에 대한 낮은 시민의식
 -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젊은 층의 40%는 재활용을 하지

1) 위생 매립은 비위생 매립과 달리 쓰레기를 일정 높이로 쌓아 다진 후 그 위에 흙을 덮어 악취 발생, 침출수 누출 등을 방지하는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쓰레기 매립방법

않는다고 응답

- 2018년 4월 정부가 수도권(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0세 이하 남녀 총 384명을 대상으로 환경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40%는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 가장 큰 이유로 '바쁜 일상'과 '시간 부족'을 지적

쿠알라룸푸르市 무인단말기 정책의 주요 내용

- 재활용품 분리배출 무인단말기(1C1R, 1Komuniti 1Kitar Mula) 설치
 - 쿠알라룸푸르市는 쓰레기 매립지인 버자야 엔바이로 파크(Berjaya Enviro Park)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무인단말기 운영을 공동 추진
 - 무인단말기 설치 지역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단지
 - 2021년 11월 재활용품 분리배출 무인단말기를 시범 운영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2022년 8월 기준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푸두(Pudu), 진장(Jinjang), 반달 툰 라작(Bandar Tun Razak) 공공주택단지에 설치
 - 향후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공공주택단지와 일반주택가에 무인단말기를 설치해 추가 운영할 계획
- 운영 방식
 - 주 2회 정해진 시간에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캔, 종이, 플라스틱, 음식 조리용 기름을 무인단말기에 분리 배출
 - 무인단말기 분리 배출 품목에 따라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지급
 - 예를 들면, 알루미늄 캔(12포인트), 종이(2포인트), 플라스틱(5포인트), 음식 조리용 기름(10포인트)
 - 시민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지급 받은 포인트를 연유, 설탕, 밀가루, 음식 조리용 기름 등 생필품으로 교환 가능
 - 예를 들면, 연유(10포인트), 설탕(12포인트), 밀가루(10포인트), 음식 조리용 기름(16포인트)



[사진] 재활용품 분리배출 무인단말기(1C1R, 1Komuniti 1Kitar Mula) (출처: Wilayah Ku)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2/08/10/dbkl-introduces-rewards-based-recycling-drive>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2/03/778625/can-malaysia-achieve-40-cent-recycling-rate-2025>

https://www.wilayahku.com.my/tebus-barangan-harian-selepas-kitar-semula/?utm_source=dlvr.it&utm_medium=facebook#.YvN_bXZByMo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32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2년 9월 26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